

“50~60대 중장년층 15만명에 3년간 재취업 맞춤형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폴리텍대 등과 자격증 취득 돕고
‘경력지원사업’ 신설 일경험 제공
경력전환형 일자리 6000개 발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층과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0~60대 중장년층 약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퇴직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장년층이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연간 3만 5000명, 3년간 총 14만명을 대상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중장년내일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고용노동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장년층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퇴직 후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사무직과 서비스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원하는 기술직·전문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6개 이상의 우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여 3년간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중장년층과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성공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4년간 1870억 투자

산업부, 청년문화센터 등 조성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4년간 187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7일 산업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산림청의 산단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마을은브

랜드산단조성(랜드마크) 1개소, 문화마을은브랜드산단조성(브랜딩)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산단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시설+시설) 청년문화센터(산업부) + 직장어린이집(고용부) ▲(시설+인프라)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산업부) + 산단 주변 도시숲(산림청)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코트라, 밀라노 섬유전시회 참가

30개 기업 참여 한국관 운영
첨단 기능성·천연소재 제품 선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6일까지(현지 시간) 사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유니카 춘계 섬유 전시회(Milano Unica 2025 S/S)’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파리 프레미에르비종과 함께 세계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전시회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출품이 가능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섬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 전시회다.

코트라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가 공동 조성한 한국관에는 30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첨단 기능성 제품과 친환경·천연 소재를 결합한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의류용 합성피혁 제조사 D사의 경우 20년 이상 기술력으로 통기성과 드



산업부와 코트라는 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함께 지난 4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간)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 유니카 춘계 섬유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

/코트라

레이프성(Drape)이 우수한 램스킨 원단을 출품, 글로벌 브랜드 H사와 약 8만유로 상당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패션 교육기관인 마랑고니 스쿨과 협업체를 통해 국내 기업 원단으로 제작된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한국 섬유를 경험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출범... 원장에 성시현

산업부, 국내 첫 엔지니어링 전문기관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연구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국내 첫 전문 연구기관이 출범했다. 초대 수장은 성시현(64·사진)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재단법인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동 출연해 설립했다.

초대 원장에 선임된 성 전 산기평 원장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산업부에서 근무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2013~2015년)도 역임한 산업기

술 전문가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25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소식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아파트 인근 녹지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권익위, LH·지자체 등에 개선 권고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 녹지에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 69건 중 21건(30.4%)이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민원은 지자체,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민원인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어려워 통근·통학 시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무허가 씨앗 거래의혹 업체 69곳 적발

국립종자원, 위반사항 검·경 조사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 종자(씨앗)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업체 69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국립종자원은 2024년 기준 농산물의 종자·묘(畝)를 취급한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7건은 검찰, 2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찰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종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

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지난해 검찰통보 건수(67건)가 전년(45건)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 강화가 꼽힌다.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